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7, 요한계시록 11-12장, 일곱째 나팔, 여자와 용과 아들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1-12장, 일곱째 나팔, 여자, 용, 아들에 관한 17회기입니다.

11장의 끝 부분인 14절부터 우리는 일곱째 나팔, 즉 셋째 화를 소개합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화, 화, 화를 말하고 이를 마지막 세 나팔과 연결시키는 독수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제 14절은 9장에 있었던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곧 오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15절에서 시작되는 7번 나팔에서 성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1장 끝까지 일곱째 나팔,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것은 셋째 화일 것이며 큰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이르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들이 노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임하였나이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매 그 성전 안에 그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마지막 구절 역시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일곱째 나팔과 함께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우리를 역사의 정점에 이르게 했습니다. 15절은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는 사실로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흥미롭게도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대신 천사의 음성이나 하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로의 찬송이나 연설에서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은 분명히 우리를 역사의 종말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15절에서 내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즉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나라와 통치가 사탄과 짐승과 이 세상과 로마제국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사실이 이제 땅에서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제 그 절정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로마 왕국과는 달리, 이제 이 왕국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통치권의 이전, 왕국의 이전, 즉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과 주권이 마침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될 것인가는 이제 그 왕국의 이전으로 그 완성을 이룬다. 이 땅, 즉 사탄과 짐승의 통치권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요점은 16절과 그 뒤에 나오는 24장로가 이 사건들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과 인봉의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히 두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 24장로의 연설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첫째, 5장에서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이 어떻게 언급되는지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주권자로서 묘사됩니다.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은 모든 창조물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내가 보기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1장과 8절, 1장 4절과 1장 8절, 그리고 4장 8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것이 삼위일체, 즉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인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와 그의 백성이 영원히 통치할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구의 세 번째 부분인 오실 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왕국이 이미 도래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나머지 17절과 18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게 될 주요 주제의 가닥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히 18년에 열방이 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였으니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과 심판 장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나이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19장부터 22장까지 보게 될 심판의 장면과 보상과 의로움의 장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인의 이 마지막 부분은 24장로의 연설이나 노래의 형태로 소개됩니다. ,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19장부터 22장까지에서 더 자세히 전개될 주요 가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제 일곱째 인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끝이 다가온 것입니다. 10장부터 시작하면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언어에서는 시간은 더 이상 없고, 또 다른 재앙이 있으며, 일곱 우레가 봉인되고,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절정, 일곱째 나팔, 세상 왕국이 왕국이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 책의 결정적인 절정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책은 여기서 거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정에 이르렀고, 4장과 5장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이제 역사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시간이 더 이상 없으며, 오실 분이 이제 오셨고, 그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의 절반 정도만 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2장과 13장은 거의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David Aune의 주석과 다른 여러 작품에서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11장 19절에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4장에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천국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12장과 13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부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전한다는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 이야기들 중 하나는 4장부터 11장까지이고, 이제 12장부터 22장은 4장부터 11장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제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1장부터 11장보다 더 자세하고 깊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과 13장은 종종 요한계시록의 중심점이나 책의 받침대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12장부터 13장은 분명히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2장과 13장이 11장에서 보았던 갈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성취했지만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짐승을 소개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갈등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11장의 갈등이 11장에서 탐구되었던 것보다 이제 더 자세하고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탐구될 것 같습니다..

12장은 교회 갈등의 진정한 근원을 탐구하는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특히 타협을 거부하여 고난을 당했던 두 교회, 그리고 11장과 다른 곳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그 신실한 증인의 묘사를 시작으로 12장과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갈등의 진정한 근원,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갈등의 진정한 근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12장과 13장은 휘장을 걷히고 휘장을

건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장된 시야,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보여 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손에 굴복하고 있으며 타협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안디바라는 한 사람은 이미 목숨을 잃었고, 요한은 앞으로 더 많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볼까? 12장과 13장은 독자들이 이 갈등의 진정한 근원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새로운 관점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독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2장에서는 12장의 장면을 지배하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꽤 흥미로운 세부 사항으로 묘사된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을 소개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그 여자의 아들인 아들을 소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고 그들은 천국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느니라.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아,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있는 자기를 위해 예비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하려고 할 때에 뱀이 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입에서 물을 강 같이 토해 여자를 붙잡아 급류로 쫓아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매 용이 그 입에서 토해 내었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참으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 즉 여자와 용, 그리고 여자의 아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기능합니까? 1세기 독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이 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선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첫 번째는 12장의 시작 부분에서 소개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그 여자는 매우 흥미로운 용어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태양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본문을 읽지 않고 일부 신구약간 묵시문학에서도 해와 달, 머리에 별이 있다는 언어는 종종 족장과 그들의 아내에 대한 설명과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9절)에서 우리는 창세기 37장과 9절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여 요셉의 꿈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족장들과 관련된 해와 달과 별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성서와 같은 책에서 또 다른 묵시적인 작품과 다른 곳에서 해와 달이 달과 머리 주위의 12개 별은 종종 족장들과 심지어 그들의 아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 여자는 메시아가 나온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녀가 낳을 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으로 식별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여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고, 흥미롭게도 그 여자는 아들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 이상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즉 그녀는 이스라엘이지만 동시에 그녀는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그렇다면 그 여자는 아마도 특정 시기를 초월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스라엘이지만 분명히 그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구체화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적용되었고 이제는 교회에도 적용되는 제사장 왕국과 같은 구약의 언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은 이스라엘을 확장하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여자를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또한 적어도 부분적으로, 비록 내가 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아마도 그 여자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 그 이상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그 민족의 일부로 제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산고를 겪는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구약성경의 개념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즉 이제 메시아,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고난을 나타내는 산고에 대한 묵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지만 더 광범위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초월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두 번째 표시는 용입니다.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으며 일곱은 완성, 완전함을 의미하고 열은 완성을 의미하는 큰 숫자입니다. 큰 힘과 권위. 용, 다시 한번 우리가 11장에서 짐승과 함께 본 것처럼 용은 이미 역사를 가지고 요한에게 내려온 인물이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성서 문학과 구약성서 역사 전반에 걸쳐 사용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구약성서와 많은 시편, 그리고 예언서에서 왕국이나 통치자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이나 바다 괴물 유형의 인물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다 괴물이나 용으로 묘사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다른 유대인 작품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악하고, 신이 없고, 억압적인 제국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이나 바다 괴물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74장에서 저는 단지 몇 가지 예를 제공할 뿐입니다. 하나는 시편에서, 다른 하나는 예언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74편의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오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신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물속에 있는 괴물의 머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리바이어던의 머리를 부숴버린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구약성서와 관련된 또 다른 바다 괴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목시적인 문학과 예녹서와 같은 다른 유사한 짐승에서 리워야단에 대해 읽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시고 그 음식을 사막의 생물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바다를 가르신 맥락에서 바다 괴물 또는 리워야단은 머리가 일곱 개인 괴물인 리워야단의 머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인도하셨을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바로를 상징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인 이사야 51장과 9절은 구약의 예언 본문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사야 51장과 9절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데리고 나오실 새로운 탈출을 시작하실 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을 읽게 됩니다. 그분은 새로운 탈출을 통해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51장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행동하기 시작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팔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입으소서.

지나간 날과 옛날과 같이 깨어 있으라. 라합을 쳐부수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합은 바다 괴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괴물을 뚫은 건 당신이 아니었나요? 10절, 바다와 큰 깊음의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사 구속받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암시.

그래서 다시 파라오는 바다 괴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실 때 패배시킨 라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 이사야는 그것의 예행연습, 새로운 탈출에서 그것의 반복을 기대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의 아람어 번역인 이사야 타르굼은 실제로 9절에서 본문 자체에서 라합을 바로로 식별합니다.

요점은 당신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텍스트를 읽을 수도 있고 묵시적인 문학에는 혼돈과 악, 억압, 사탄의 힘을 연상시키는 용이나 바다 괴물이 나옵니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고 반대하는 인간 통치자와 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바다 괴물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John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의미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John이 용이나 바다 괴물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는 이미 특정한 것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이 9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 용을 사탄으로 식별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 큰 용을 말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옛 뱀이니라. 요한은 분명히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데려갑니다. 따라서 요한이 12장에서 본 이 용은 20세기에 이집트와 같은 억압적이고, 신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제국과 통치자들에게 영감을 준 동일한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제 12장의 요한 자신의 환상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4절에서 이 용이 하늘에서 별의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던지는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사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다니엘서 8장과 10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특정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탄이 악마적 존재들을 데려오고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본 것처럼 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사탄의 원초적인 타락에 대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별들은 종종 천사적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탄이 타락할 때 사탄은 그의 악귀 집단을 끌어들이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비록 이것이 단순히 이 용적 존재의 힘, 즉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용의 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가 그의 힘으로 별의 3분의 1을 끌 수 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꼬리. 하지만 다니엘 8장과 10절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면서 용은 단지 아이를 삼키려는 목적으로 이 여자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그 여자는 임신하여 곧 아들을 낳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5장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심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5절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어린 아이, 아들, 남자 아이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2장과 8절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낳게 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2장 외에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묵시적인 상징적 열쇠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술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단순히 아들이 태어나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함으로써 많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 삶과 죽음, 부활과 승영이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붕괴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은 5장과 같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요한은 이것의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들을 낳은 여인과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용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삼켜 죽이려는 용의 계획은 좌절되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즉시 우리는 6절에서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13절이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7~12에서 중간 부분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즉, 7부터 12까지 빼면 이야기가 꽤 잘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사건을 더 깊이 해석하는 중간 부분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 아이를 삼키려는 사탄이나 마귀나 용을 좌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이중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미가엘과 그의 대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천국 전투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그것을 읽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대천사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에는 이원론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천사 중 하나인 대천사 미가엘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물리치고 그를 하늘에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 사이의 어떤 이원론적 갈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싸움에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자는 10장에서 다니엘에게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장 13장과 21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이에 응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가 20일 동안 나를 저항했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과 함께 갇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21절에도 “그러나 먼저 내가 본문의 책 곧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왕자 미가엘 외에는 그들 곧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자에 맞서 나를 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은 미가엘이 전투를 벌이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페르시아 뒤에 있는 왕자나 천사를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Michael을 발견합니다. John은 그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재구성합니다. 이제 마이클은 다시 한 번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탄 그 자체인 바다 괴물인 용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구들은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하는 것에 관한 유대인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탄이 하늘에서 원초적으로 추방된 사건입니다. 그 대부분은 그 기원이 이사야 14장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2부터 14, 12부터 15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과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읽느니라.

당신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열방을 멸하신 주께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집회의 산, 신성한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것과 같이 되리라. 그러나 당신은 무덤, 구덩이 깊은 곳으로 자신을 끌어내렸습니다. 종종 이 본문은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추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조 초기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은 요한이 아마도 유대 문헌에서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하는 개념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매우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입니다. 이 전쟁과 하늘에서 사탄을 추방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시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암시함으로써 그 일을 명시적으로 적용합니다. 11절의 찬송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두 번째 부분, 즉 찬송, 즉 하늘에 큰 소리입니다. 10-12절에서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참소자 곧 마귀를 이기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이 우리에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 사이의

이 천국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일어나는 천국의 패배를 묘사하는 묵시적인 상징적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랬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시기 때문입니다.

5장에 나오는 찬송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시고 모든 인류 중에서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사시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가지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이 하늘에서 사탄을 추방한다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미지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이 궁극적으로 패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10장과 12장은 이 천상의 전투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9절의 이 전쟁은 10-12장의 이 찬송으로 해석됩니다. 그 싸움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단지 미래의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요한이 과거, 창조, 또는 다른 때에 있었던 최초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기 위해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 전쟁을 해석하는 10-12절은 이 10절의 결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1절은 10절의 기초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떻게 확립되었는가? 고소인은 어떻게 쫓겨났나요? 11절을 통해, 어린양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증언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 사탄이 이제 패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에 대한 아이러니한 관점이라는 개념을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는가? 로마와 같은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추종자들의 신실한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너희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응답으로 나옵니다. 사탄 자신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은 권력의 언어, 왕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국이 스스로 갈라지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때에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어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탄의 나라에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12장, 특히 10장부터 12장까지에서 그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왕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무너졌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받는 신실한 증인을 통해 사탄의 왕국은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의 나머지 부분을 준비하면서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를 알려줍니다.

즉, 이 패배의 결과로 이것이 하늘에서는 기쁨을 의미하지만 땅에는 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탄이 패배하여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으로 하늘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것은 땅과 바다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지만 죽음을 당한 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진통 속에서도 일부 논평에서 말했듯이 그는 조금 휘둘러 다니고 발로 차고 문제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죽음. 그러므로 이것이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과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과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과 심지어 안디바와 같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글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탄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허용되었으며, 가능한 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는 이미 패하였고 때가 촉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맹렬히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로마의 손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역할을 하고,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상황을 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는 거대하고 거대한 제국인 것처럼 보이며, 그들을 저항하고 신실한 증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헛된 일인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은 그들은 휘장이 걷힌 것을 볼 수 있고,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와 물리적 충돌의 결과는 다름 아닌 하늘에서 시작된 더 넓은 싸움의 일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탄이 쫓겨나고 패배했으며, 이제 패배한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약간씩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제국과 직면하는 갈등의 진정한 근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하고 실제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이야기가 13절에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대천사들 사이의 전투의 형태로 이 아이를 삼키는 것으로부터 사탄이 좌절되고 하늘에서 사탄을 추방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평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 결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그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최후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과 아들과 여자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같은 여자를 발견하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는 아마도 처음 두 부분에서 그녀의 등에 대한 묘사와 연속적으로 지금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세 구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동일한 여자이지만 이제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방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제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용은 그녀를 쫓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을 만나기가 좌절된 그는 이제 여자를 쫓는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용도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여자가 사막으로 쫓기며, 독수리 날개를 받아 사막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구약의 출애굽기 이미지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사막으로 간다는 말은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파라오와 관련된 짐승과 용의 관점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이미지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주어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14절에서는 광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곳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감 같이 너희를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여자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모티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 1260일 전의 동일한 시간적 이미지와 다니엘의 때와 때와 반 때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이것들은 아마도 정확히 같은 기간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전체 존재시기는 1세기 소아시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체 기간은 1260일로 묘사되어 다니엘에게 암시된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또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는 다니엘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지만 강렬하지만 짧은 기간을 암시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 7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2장의 사건이 11장의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여자의 형상은 11장의 두 증인의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기능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그 모습을 보존하며 측량되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반대와 박해, 심지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증언하는 두 증인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여 사탄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고 보호받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용이 여자를 멸절시키려는 방식입니다. 그가 여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그의 입에서 홍수나 강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묵시적인 상징주의의 영역에 있습니다. 확실히, 용이 교회 역사의 어느 시점에 현장에 도착하여 물을 부어 입으로 토해냈다고 제안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다시 한 번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그는 아들을 잡을 수 없어서 이제 여자를 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교회는 유대인,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반대를 상징하여 홍수를 쏟아 붓습니다. 종종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홍수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어쩌면 홍해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홍해가 장벽으로 여겨졌던 곳에서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 9절로 돌아가서 홍해가 바다 괴물의 서식지로 여겨졌던 곳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곳에서 바다 괴물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이 물의 분출은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을 거의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 바다 괴물의 본거지인 홍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벽이 되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그들의 생명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 빠뜨리고 해를 끼치며 그들의 생명과 존재를 멸절시키려는 급류를 뿜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징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조차 좌절되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땅마저도 열리고 물을 삼키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여자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12장 초반에서 그의 먹이를 삼킬 수 없게 좌절되었고, 이제 아들이 그 여자를 쫓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용이 그녀의 자손을 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손은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끝부분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 여자의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교회가 묘사된 방식이며, 3장과 4장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 역시 교회를 대표하거나 상징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분명히 용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13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다소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처럼 그녀는 사막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탄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다시 한 번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봅니다. 한편으로 그 여자처럼 교회도 보존되고 보호되며 안전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손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1장에서 본 성전과 조금 비슷합니다. 성전의 치수를 재보니 그 안전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은 이방인들에게 던져졌는데, 이는 그곳이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두 증인은 한편으로는 무적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여전히 짐승의 손에 박해와 죽음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보존되고 보호됩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박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이것이 성도들이 이기는 방식임을 분명히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그들이 실제로 사탄을 물리치는 방식이다.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증인이 되셨도다. 그래서 교회는 보존되었으나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를 일으키고 그 구성원을 박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 12장이 교회의 갈등과 참된 투쟁의 진정한 근원과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고 폭로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제국을 바라보며 그 주장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괴물에 맞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는 일은 휘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갈등의 진정한 근원이 사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으나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을 파괴할 수도 있고 박해하여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보호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관점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증거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 특히 2장과 3장의 두 교회에게는 이것이 신실한 증거를 유지하고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에게는 타협을 멈추고 대신 입장을 취하라는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충실한 증언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장은 사실 외에도 사탄이 이미 패배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도록 허락된 것은 단지 그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리저리 휘젓고 해를 끼치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백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장 전체의 이야기를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12장이 아들과 여자와 용의 이야기인 12장의 주요 줄거리라는 점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섹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마도 13장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 그 주요 줄거리는 아마도 두 가지 이야기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로마 세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마도 John이 사용하는 다른 비전 중 일부와 공감하는 이야기를 구성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12장에서 이 두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텍스트의 일부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추가 빛을 실제로 읽고 해석하고 새로운 빛을 발산하는 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1-12장, 일곱째 나팔, 여자, 용, 아들에 관한 17회기입니다.